

## 소흘읍 배드민턴 운동 공간 없다

사설 공간에서 막대한 경비 부담하며 운동



소흘읍에 거주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포천읍 동교동에 있는 사설 체육관에서 월 14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동을 하고 있다.

소흘읍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 설치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공간이 없어 인근 지역이나 개인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포천동의 경우, 실내체육관, 포천종합고등학교, 포천고등학교, 포천중학교 등에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흘읍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따르면 "초가팔리에 있는 사설체육관에서는 1개월에 7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을 하고 있고 동교동에 있는 사설체육관에서는 1개월에 140여만원을 들여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우리 시가지에서 동교동 사설체육관까지는 6km의 거리로 이곳까지 차량이동하는 것은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동호인들은 "소흘읍 인구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생활체육공간의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임"을 지적하고 포천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호인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우리 택지 개발지구내 대경중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송우초등학교 교사 신축과 함께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 동남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과거 정치인들이 포천읍 위주로만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해온 결과"라며 "이제는 포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읍면동을 골고루 개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 동 소재 각 체육관에서도 전기료와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테니스 코트는 사설코트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천시의 여건상 소흘읍 생활체육시설 확보문제를 당장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탁구신동'에서 '올림픽스타'로

유승민 동남고 방문



11일 동남고를 방문한 유승민 선수가 학교관계자 및 포천시탁구협회관계자, 학생들의 환영에 답사를 하고 있다.

제1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린 11일 오후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에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선수(22)가 방문했다.

동남고를 방문한 유승민 선수는 먼저 교정실에서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조대행 교장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승민 선수가 모교를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승민의 부모님과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탁구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승민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지을 때만큼 기쁘다"며 "많은 분들의 환영인사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제단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긴 유승민은 옥영자 동인학원이사장, 이기양 포천시탁구협회회장, 유철현 포천시탁구협회부회장, 이종현 동남고등학교총동문회장, 김종산 코치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민의 아버지인 유우형(50)씨는 "유승민이 바쁜 일정속에서도 모교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사를 제치고 방문하게 됐다"며 "모교학생들과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담에서는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옥영자 동인학원이사장의 공로패전달과 이종현 총동문회장의 행운의 열쇠 증정식이 치러졌다. 이어 유승민을 환영하는

이은지(2년)의 9명의 걸스카웃 학생들의 치어리더공연이 있었다.

유승민은 "후배들을 만나게 돼 기쁘고 힘이난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욱 분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15회 경기도지사기 탁구대회가 개최중인 동남고 체육관에서도 유승민의 환영식이 있었다. 예선전을 치르는 중에 유승민과 만나게 된 생활체육 참가자들은 "포천에 와서 유승민선수를 보게 됐다"며 환호했다.

생활체육대회에 참가선수들이 함께한 환영식에서 이기양 회장은 유승민에게 행운의 열쇠와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치렀다.

유승민은 "대회에 참가한 탁구 동호인들이 공경하고 열린 경연을 펼쳐 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며 "포천에 와서 유승민선수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고에서 간단한 사인행사를 마친 유승민 선수는 포천시 실내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리셉션과 개막대회에 참가해 포천시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한편 유승민선수(22)는 지난 달 23일 아테네올림픽 남자탁구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화오를 세트 스코어 4-2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일약 올림픽 스타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폭우속 1천만 경기도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3일 閉幕  
 抱川市 테니스와 궁도 우승 개최지 저력 과시



포천시에서 개최된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폭우 속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사진은 포천시가 우승을 차지한 궁도 경기모습.

점도 각 시군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이번 생활체육대회가 기존 대회와 차별성을 띠도록 야간에 개막식을 개최해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베이스타운에 18개 시군 선수단이 투숙해 미니 선수촌을 형성한 점

도 눈길을 끌었다. 참고로 생활체육대회는 경기도 체육대회와는 달리 종합우승시·군을 가리지 않고 종목별 입상팀만을 가린다. 한편 폐회식에서 김포시가 내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발표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신현옥, 원선아 전국대회 출전권 따내

수원시 한조씨름전용경기장에서 치러진 2004 경기도씨름왕 선발대회에서 포천시 선수들 선전했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 포천시는 선수 16명과 임원3명이 참가했다.

이중 여자일반부 80kg이하 결승에 오른 신현옥선수(주부)는 용인의 김혜숙선수에게 아깝게 2위를 차지했다.

중·고등부 구분없이 통합으로 치러진 여자학생부에서는 원선아(포천여중 2년), 이국란(포천여중 2년)선수가 나란히 4강에 올랐다. 포천시간에 맞대결한

맞붙은 4강전에서 원선아선수가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현옥선수와 원선아선수는 순위권에 들었기 때문에 오는 10월 초 개최될 예정인 대통령배 전국씨름왕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씨름의 불모지라도 같은 우리시에서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씨름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선아선수, 신현옥선수가 우승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문지혜선수는 예선에서 탈락해 관계자들을 아쉽게 했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웰빙건강타운



# OPEN 기념 할인 "대" 축제

<판매가 50% 할인행사 10월 10일까지>

◆ 소중한신 분들께 건강을 드립니다 ◆

- ▶ 진한홍삼
- ▶ 미래석류 700ml
- ▶ 장어사슴녹용
- ▶ 클로렐라
- ▶ 고려홍삼절편
- ▶ 헛개365
- ▶ 자크로 운스 500ml
- ▶ 콘도로이친 칼슘
- ▶ 물개유
- ▶ 상어연골 콘도로이친
- ▶ 장뇌삼 엑기스
- ▶ 홍삼동충하초
- ▶ 홍화씨 엑기스
- ▶ 나이스데이(변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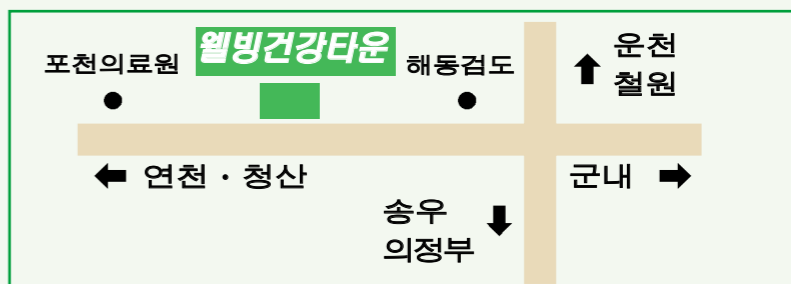


대표 하승완

기타 건강기능 식품

◆ 엑기스

자라, 붕어, 가시오가피, 홍삼  
 포도, 배, 호박, 헛개나무 등



매장: 포천시신음동 161-6 Tel) 031-534-3618 H.P) 011-9076-6318 대표 하승완